

브라질, 126억 헤알 농목축업 지원대책 주요 내용

- 브라질 정부는 지난 4월말 금융위기이후 수개월간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여 사업의 폐쇄, 법정갱생법의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브라질 식육가공부문의 회생을 목적으로 한 총 정부의 126억 real이 소요되는 농업부문 지원대책을 발표

농업부문 지원대책 주요 내용

- 주요 목적 : 브라질 농목축업분야에 정부계은행의 운전자금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의 누적 적자 감소
- 주요 지원방안
 - ▶ 설탕·알코올부문 : 연료 알코올가격의 유지와 적정생산 확보를 위해 관련업계앞 '09~'10년 연료알코올 비축을 위한 대출한도 설정
 - 비축자금 원천 : BNDES(사회경제개발은행)에서 13.1억 헤알의 대출한도 설정
 - 지원대상 : 연료알코올 생산공장, 증유소, 알코올 판매업체 또는 조합
 - 지원이자율 : 연 11.25%
 - 기타 : 브라질 국영상업은행인 Banco do Brasil에서도 동등한 조건으로 10억 헤알 한도내 금융서비스 지원 예정

▶ 농축업분야 생산증진을 위한 융자 프로그램

- 대출한도 : 100억 헤알
- 프로그램 관리 : BNDES 및 동 은행에 등록된 거래은행
- 지원대상 : 농목축산업, 농목업 기계기기산업 및 농목업조합
- 대출기간 : 12개월 거치기간 포함 24개월
- 지원이자율 및 신청기한 : 연 11.25%, '09년말 신청한

▶ 정부와 민간의 농산물 옵션거래관련 규정 제정

- 농산물가격 최저금액 보증정책(PGCM)중 생산품의 현지 최저 가격 확인 및 예상 창고보관 비용·관련 금융수수료·운반비용·최고 10% 이익분에 대해 옵션거래 가격결정에 반영
- 계약종료일 이전에도 판매를 허용하되, 종료일 이전에 판매시 10%의 이익분 제외, 단 판매일까지의 금융거래비용은 포함

▶ 기존 특별목적기금의 융자금액 증액

- 농목업 조합앞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PRODECOOP(농목업생산 부가가치개발계획)의 융자한도액을 10억 ⇒ 17억 헤알로 증액
- MODERFROTA(농업용 트랙터등 수확용 기계근대화 계획)의 자금지원 한도를 5억 ⇒ 5.5억 헤알로 증액
- BNDES의 '08~'09 수확관련 융자 프로그램을 '09~'10년 수확 까지 연장 승인

▶ 농가 부채상환기간 연장

- '08년에 갱신된 농가 부채상환기간을 '09년 6월 30일까지 연장

- 이러한 일련이 농업부문 지원대책은 브라질 국가 통화심의회(CMN)에서 결정되었으며, 주로 정부계 은행을 이용하여 이 분야에 운전자금을 융자함으로써 농목업의 누적된 마이너스를 줄여가려는 것임
- 농목업 외에 또 다른 지원 대상 분야는 설탕·알코올 부문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수출 감소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
- 이에 대해 해당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반기고 있지만, 기업이 실제로 자금을 받을 때까지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

< 사옹파울루 사무소 제공 >